

韓國茶道の 構造的 特性

金 明 培

崇義女子專門大學 教養學科

(1986. 2. 27. 接受)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eatism of Korea

Kim Myöng-Bae

Soong Eui Women's Junior College

(Received February 27)

Summary

In order to Characterizing the tea-culture of Korea, historical records for tea-culture of Korea, Japan and China were review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s for the type of tea through the history of Korea, it could be characterized as Cake-tea(餅茶) in Sam Kook dynasty, Lump-tea(研膏茶) in Koryö dynasty and leaf tea(葉茶) in Chosun dynasty. Those were affected by chinese and Japanese tea-culture.
2. Fashiono of tea-culture in Korea were *unique*, imitative and reconstitutive.
3. It was concluded that the tea-cultuse in Korea might be established by the "cult of tree"(樹木崇拜信仰) of Hwa Rang in Shilla dynasty.

I. 序 論

우리 나라 차문화의 참모습을 밝혀내는 일은 그 전통을 계승하는 차 마시기 풍습의 보급면에서나 학문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긴요한 당면과제라고 생각 된다.

본고에서는 우선 차일의 가공 이용형태와 다도문화의 주요한 특징을 규명하므로써 제반 후속연구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종전까지 이 분야의 연구에 볼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

『朝鮮法制史稿』로써 이름난 아사미(淺見倫太郎)는 『朝鮮古書解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朝鮮에는 茶가 없다. 茶가 사용된 것은 近代의 일로서 日本人이 즐기는 바이다. 丁若鏞의 茶山 또는 茶亭이라고 이름한 것은 대개 康津에 있으면서 山茶(동백나무-引用者註)를 많이 심었기에 취한 것

이다. 山茶에 대해서는 이 책(『雅言覺非』-引用者註)의 山茶者南方之嘉木也云云條에 보인다. 山茶는 일본말의 椿(동백-引用者註)을 가리키는 것이다. 조선에는 이와 같은 同文異義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民藝研究家인 야나기(柳宗悅, 1889-1961)는 『朝鮮陶磁號序』에서 “조선에는 일본처럼 도자기를 愛玩하는 풍습이 없다. 수집가도 없고 또한 茶禮와 같은 것도 없다”고 하였으며, 히사마쓰(久松眞一, 1889-1980)博士는 『茶道の哲學』에서 “중국에도 點茶라는 것은 있다. 그러나 차의 문화라는 것은 일어나지를 않았다. 茶道라는 것은 없다. 조선에도 없다. 차가 하나의 종합적 문화를 창조하였다는 것이 이것은 일본의 독특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차 문화에 대한 歪曲된 視角은 비단 외국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팽배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함은 물론 차문화의 시대별 변천과정, 특징, 일본에 끼친 영향 등을 문헌고증과 고고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인용하므로써 역사 속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II. 本 論

1. 茶의 傳來

한반도에 중국의 차와 차씨가 전래된 사실은 『三國史記』(新羅本紀)의 興德 王 3 年(828年) 12月條에 “入唐廻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 茶自善德王時有之 至於此盛焉”과 같이 적혀있다.

그 뒤 중국의 차나무는 고종 22년(1885년)에도 청나라의 九江道에서 들어온 것 같다.¹⁾

한편 일본에서 개량된 중국 小葉種의 차나무는 1920년 以來 全南, 慶南, 濟州島에 移植되었다.²⁾

2. 茶의 產地

한반도에서 차나무가 자랄 수 있는 北限帶에 대해서는 평안도 남부에서도 野生茶를 보았다는 기록도 있었으나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³⁾

그리고 고려 李奎報(1168~1235)의 茶詩에 따르면 忠南 禮山の 香泉寺와 全北 全州의 天龍寺에도 차나무가 있었던 것 같다.⁴⁾

그러나 최근에는 全北 益山郡 응포면 봉화산 남서쪽 계곡의 임해사터(북위 36° 03')에서 200평의 野生茶나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⁵⁾

차의 分布에 대해서는 『世宗實錄』(1454年)의 「地理志」에 경상도 6개소와 전라도 28개소가 적혀있다. 그리고 성종 25년(1530년)에 성립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위의 분포지역이 增減된 경상도 10개소와 전라도 35개소가 적혀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포함된 貢茶所에 대해서는 일찌기 寺院茶說을 주장하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寺院을 貢茶所로 看做하는 偏見도 있었다.⁶⁾

그러나 貢茶所는 地方制度로서 경상도에 3개소와 전라도에 18개소나 있었던 것이 문헌상으로 확인된다.⁷⁾

3. 茶의 時代別 利用形態

中國에서 形成된 唐代的 團茶法, 宋代的 末茶法, 明代的 淹茶法은 한반도와 日本列島の 相應하는 各時代에 波狀的으로 傳播되었다.⁸⁾

이처럼 連動되는 茶文化의 樣相을 필자는 東洋茶文化의 共通分母라고 하며, 分子는 各國의 茶道精神이라고 한다.

중국으로부터 차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반도의 三國時代에는 餅茶, 高麗時代에는 研膏茶中心, 朝鮮時代에는 葉茶中心의 茶文化가 展開되었다.

三國時代 三國時代에 餅茶가 이용된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傍證資料가 있다. 즉, 高句麗의 錢茶에 대해서는 아오끼(靑本正兒, 1887~1964) 박사가 “나는 高句麗의 古墳에서 나왔다는 小形薄片의 餅茶를 標本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지름 4cm 남짓의 錢形으로서 重量은 닷 푼 가량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⁹⁾

그리고 1925년 정월, 全南 長興에서 나카오(中尾萬三, 1882-1936)박사가 발견한 뒤로 그 이름을 떨친 돈차(錢茶)도 당나라의 陸羽(727?~803?)가 지은 『茶經』에 보이는 餅茶의 영향을 이어 받은 百濟나 新羅 以來의 遺習으로 評價되었다.

이 錢茶의 발견은 커다란 反響을 이르켰다.

半平生의 精力을 蒙古와 磚茶의 研究에 소모한 호소다니(細谷 清)는 “본 고장인 중국에서 이러한 錢茶는 먼 옛날에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南朝鮮의 한 地方에만 남아 있다. 차를 싫어하는 것으로 통한 朝鮮에 그 殘影이 보인다는 것은 재미있는 애기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¹⁰⁾

(1) 淸案, 9冊 #433~4

(2) 諸岡 存 外, 「朝鮮의 茶와 禪」(東京: 日本의 茶道社, 1940), 40-42面.

(3) 露國大藏省(編), 「韓國誌」(東京: 日本 農商務省, 1905), 19, 228, 235面.

(4) 李奎報「東國李相圖集」第8卷 “次顯靜首座寄林工部并序” “天龍寺詩”條.

(5) 李炯石, “우리나라 차나무 분포지”, 「茶와 茶道教育」(서울: 韓國教育家族山友會, 1985), 33面.

(6) 稻葉岩吉, 「朝鮮のお茶」(京城: 朝鮮總督府, 1937), 6-7面. 諸岡 存 外, 前掲書 2-3面.

(7) 北村秀人, “高麗時代의 「所」制度(こつて)”, 「朝鮮學報」第50輯, (1955, 1), 1面 以後. 村上四男, 「朝鮮古代史研究」

(東京: 開明書院, 1964), 455~472面. 拙著, 「韓國의 茶道文化」(東京: ぺりかん社, 1983), 27~31面.

(8) 林屋辰三郎, “茶の普及の三段階” 守屋 毅(編), 「茶の文化」(京都: 淡交社, 1981), 107~110面.

拙著, 「茶道學」(서울: 學文社, 1984), 93~96面. Okakura-Kakuzo, The Book of Tea(Tokyo: Kenkyusha, 1980), pp. 15~28.

(9) 靑木正兒, 「靑木正兒全集」第八卷(東京: 春秋社, 1971), 262面.

(10) 細谷 清, 「茶事新話」(東京: 滿蒙社, 1940), 36面.

또 모로오카(諸岡 存)박사는 「朝鮮에서의 唐代團茶의 發見」¹¹⁾이라는 글을 발표하는 한편, 이러한 奇蹟으로 얻은 연구성과에 대하여 “아무래도 茶經 속의 가장 큰 의문은 陸羽가 솜소 궁리하여 만들어낸 이른바 團茶라는 것이 과연 어떤 樣式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나는 그 精確한 製法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이 의문 해결의 示唆를 얻은 것은 실로 故 나카오(中尾萬三)박사의 朝鮮錢茶의 考察이다. (中略) 1938년 11월 以來, 나도 再三 朝鮮에 방문하는 기회를 얻고 다행히도 光州 山林技師 이 에이리(家人一雄)氏의 열렬한 引조를 얻어서(中略) 비로소 이에 茶經에 적혀있는 唐代 團茶의 製法, 煮法, 및 그 飲法까지도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결과가 곧 1940년 10월에 발행된 나와의 共著인 「朝鮮의 茶와 禪」인 것이다”라고 회고 하였다.¹²⁾

또한 모로오카박사는 錢茶의 만드는 법과 달이는 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¹³⁾ 곧 “조선의 錢茶 製法은 처음에 이것을 찌고 절구질하여 틀에 넣고 박아내어 그 복판에 구멍을 뚫고 焙爐에서 말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복판의 구멍에는 벗짚으로 꿰어 둔다. 그 모양은 영낙없이 唐나라 陸羽의 團茶 그 대로이다. 그러나 마시는 법은 이 團茶를 불에 쪄서 土瓶에 넣고 달여서 그 빛깔이 紅茶처럼 된 것을 알맞는 정도로 삶는 것이어서 우리들이 알고있는 「茶經」의 처방에 의한 團茶의 마시는 법과는 상당히 趣向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의 崔致遠(857~?)이 지은 「河東雙谿寺眞鑿禪師大空塔碑」¹⁴⁾의 다음과 같은 銘文을 통하여, 錢茶와 같은 略式의 煮茶法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곧 “다시금 중국차(漢茗)를 공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쇠나무로 들손에 붙매어 가루내지 않고 달여서 이르기를, 「나는 이 맛이 어떠한가를 가리지 않

고 단지 배만 적실 뿐이다」라고 하였다. 참된 것을 지키고 속된 것을 거스르기(忤)가 모두 이와 같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煮茶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先學들이 지적한대로 碑文에는 眞鑿禪師(775-850)가 참된 것을 지키고 속된 것을 거스르는 성품이 적혀 있으므로 通俗은 이것과 반대인 末茶를 마셨던 것이다.¹⁵⁾

그리고 신라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推定되는 찻주발(茶盃)로서 경주의 雁鴨池에서는 貞言茶라는 銘文이 있는 土器(「雁鴨池」에는 土器墨畫紋 대접이라고 적혀있다)와 皇龍寺址에서는 한반도에서 구워진 해무리굽의 靑磁盃이 出土되었다.¹⁶⁾

高麗時代 高麗時代에 研膏茶에 의한 末茶法이 盛行되었다는 것은 製茶法, 點茶法, 中國茶名과의 類縁性, 近世에 발견된 茶와 茶具의 遺物 등으로 考證된다.

먼저 고려 製茶法의 片貌는 李奎報가 읊은 다음의 詩句로써 알 수가 있다.¹⁷⁾

「雲輝에 사는 老珪禪師가 얻은 早芽茶를 보이기
에 내가 孺茶라 이름하고, 스님이 詩를 請하기에
노래하다」

시냇가 차삭 이른봄에 싹뜨게 하여 금빛 싹은 남은
눈 속에 움뻛네.

남녘 사람 일찌기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험한 길을 무릅쓰고 침과 머루물 깊이 붙잡아
간신히 골라 따서 불에 쪄어 덩어리를 이루어

이 詩句에 의해서 고려의 차는 쪄서 말린 團餅으로 만든 研膏茶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¹⁸⁾

고려시대에 마신 차에는 腦原茶, 龍團勝雪茶, 孺茶, 雀舌茶, 紫筍茶, 醞茶, 香茶, 雙角龍茶, 大茶,

11) 諸岡 存, 「朝鮮に於ける唐代團茶の發見」 「茶れん」 第5卷(1939. 7), 124面 以後.

12) 諸岡 存, 「茶經評釋」 外篇(東京: 茶業組合中央會議所, 1943), 6面

13) 諸岡 存 外, 前掲書 14面

14) 中樞院(編), 「朝鮮金石總覽」(京城: 朝鮮總督府, 1919), 70面. 復有以漢茗爲供者 則以新礬石釜 不爲屑而煮之 吾不識是何味 濡腹而已

15) 鮎貝房之進, 「雜攷」 第五輯, (京城: 朝鮮印制株式會社, 1932), 349面 諸岡 存 外, 前掲書 55面. 文一平, 「湖岩全集」 第二卷(京城: 朝光社, 1939), 351面.

16) 文化財管理局(編), 「雁鴨池」(서울: 國立中央博物館, 1980), 「土器墨畫紋대접」條. 文化財管理局(編), 「皇龍寺」(서울: 文化財研究所, 1984), 圖版 267.

17)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141面.

18) 金明培, 「中國의 茶道」(서울: 明文堂, 1985), 180-183. 鮎貝房之進, 前掲書 368面.

曾坑茶, 靈芽茶, 露芽茶 등이 있었는데, 腦原茶만이 鄉名이고, 나머지는 中國起源의 차이름이다.

특히 龍團勝雪茶는 조선시대까지 繼承되었고, 大院君 李昉應(1819-98)에 의하여 忠南 德山에 있던 古塔에서 4鎊가 발견되기도 하였다.¹⁹⁾

그리고 龍團勝雪의 銘文이 있는 洞窟의 발견은 今後の 課題가 될 것이다.²⁰⁾ 그리고 이러한 團餅을 가루내어 末茶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맛들로 같았다는 것을 다음의 史料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즉, 麗初의 帝王은 몸소 차를 같았던 탓으로 982년에 守侍中인 崔承老(926-89)는 다음과 같은 上書로써 成宗을 諫하였다.²¹⁾ 즉, “가만히 듣자오니 聖上께서는 功德齋를 베풀려고 몸소 차를 같고, 보리를 같으신다 하옵니. 臣은 깊이 聖體의 勤勞를 哀惜하게 여기나이다. 이 弊는 光宗(在位, 950~75)부터 비롯되었나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秘書監 右諫議大夫인 李仁老(1152-1220)와 李奎報가 읊은 詩에는 차를 맷돌로 갈아내는 情景가 다음과 같이 잘 描寫되어 있다.

「僧院의 茶磨」 李仁老

바람이 수레를 주관하지 않으니 개미처럼 더디고
달도꺼를 비로소 휘두르니 옥색가루 나르네
불가의 놀이에는 종래부터 진실성이 절로 있으니
갠 하늘에 우뢰소리 울리고 눈이 필필 내리네

「차맛들을 기증한 분에게 사례하다」 李奎報

들을 쪼아 나무활의 수레를 빙빙 돌리니
한쪽 광쪽이 번거롭구나
그대도 어찌 차를 마시지 않으리오만 초당안에 보내 주
었구려
내 잠 즐기는 데 치우침을 알고
불어 살기를 보이려는 까닭 뿐이라네
푸르고 향긋한 티끌 갈아내니
그대 생각 더욱 느끼겠노라.

위의 詩句에서 개미가 기어가듯이 수레를 돌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맷돌의 마찰열에 의한 찻 가루의 변질을 막기위해서였다.

그리고 이규보의 茶磨詩에 따르면 차맷돌이 「靜心調神」을 위한 道具였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高麗의 茶磨는 꽤 遺存되어 있다. 특히 1930년경 開城에서 舊家를 허물어 버릴 때 마루밑에서 발견된 茶磨의 사진과 구조에 관한 상세한 해설문도 전한다.²²⁾

그런데 동양삼국의 茶磨는 그 出現時代, 石質, 形體에 特色이 있다.

出現時代의 경우, 중국에서는 丁謂(998-1003)의 「茶磨」詩, 일본에서는 「蒸歸繪詞」(14世紀)의 「茶臼圖」,²³⁾ 한반도에서는 崔承老의 上疏文(982년)에 등장한다.

그리고 石質의 경우, 중국에서는 青巖石·青礮石,²⁴⁾ 일본에서는 和泉砂岩·花崗岩·安山石·輝綠岩(diabase)²⁵⁾ 한반도에서는 花崗岩이 사용되었다.²⁷⁾

한편, 茶磨의 上臼 모양을 보전대, 일본과 중국의 茶磨는 圓筒型이며,²⁸⁾ 고려의 茶磨는 念珠型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물은 石釜·石鼎·湯壺·銀瓶·石鉢·茶銃·鑪·鐵鑪 등으로 湧泉連珠까지의 三沸法으로 끓였다는 것을 다음의 茶詩로써 알 수가 있다.

즉, 鄭夢周(1337-92)는 風爐에 石鼎을 얹고서 술바람 소리를 들었다.

「들솔에 차 달이기」

나라에 보답할 공도 없는 늙은 서생이
차 마시기가 버릇되어 세상 물정에는 어들네
눈보라 치는 밤에 홀로 누워서
즐거 듣느니 들솔의 술바람 소리라네

이 밖에도 李奎報는 물을 끓여본 體驗談을 다음

19) 李尚迪, 「恩誦堂續集」 卷一 1面.

20) 諸岡 存外, 前掲書 178~179面.

21) 「高麗史」 卷93, 列傳 卷第6 崔承老傳

22) 鮎貝房之進, “朝鮮に於ける茶に就きて,” 「朝鮮」 第205號, (1932. 6), 13面 以後.

23) 陳香, 「茶典」(台北: 國家出版社, 1981), 139面.

24) 三輪茂雄, 「臼」(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78), 280面.

25) 陳祖榮 外(編), 「中國茶業歷史資料選輯」(北京: 農北出版社, 1981), 123面, 287

26) 三輪茂雄 上掲書 233面 以後.

27) 「韓獨藥史館 所藏品目錄」(서울: 韓獨藥史館, 1970), 271面.

28) 文化財管理局(編), 「新安海底遺物」 資料篇 1(서울: 同和出版社, 1983), 132, 203面

과 같은 茶詩로써 읊었다.

「남녘사람이 보낸 쇠병을 얻고 차를 시험하다」

벽돌화로에 스스로 달이니
밤 누각에 등불의 불꽃 오르네
처음엔 마치 목메인 소리 같더니
점점 생활소리를 길게 짓네

그런데 아유가이(鮎貝房之進)는 이 쇠병을 사용해본 체험담을 “나는 일찌기 고려 고본에서 출토된 쇠병을 실제로 많이 보았는데, 모두가 부리는 가름하고,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는 오물아 든 지름 두 치 닷分寸, 용량 한 되를 넘지않는 것으로서, 손잡이가 달린 것은 동체에는 두 세 날의 귀가 있고, 자루가 달린 것도 있었다.

이 李奎報의 시로써 차에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 (中略) 나는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물이 끓음과 동시에 「처음엔 마치 목메인 소리 같더니 점점 생활소리를 길게 짓는다」라는 自鳴현상도 같았다”라고 술회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點茶에 靑磁나 黑釉의 茶甌와 茶匙 등의 攪拌器具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點茶器具에 대해서는 仁宗 元年(1122年), 睿宗 薨逝의 弔問使節로서 고려를 다녀간 송나라 徐兢(1091~1153)이 지은 『宣和奉使高麗圖經』의 「茶俎」조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곧 “土產茶는 맛이 쓰고 뽕어서 입에 넣을 수가 없다. 다만 중국의 臘茶와 龍鳳團을 賣하게 여기며, 下賜茶 이외에 상품도 유통 판매된다. 따라서 근래 차 마시기를 자못 기뻐하여 더욱 다구를 다스린다. 금가루를 입힌 검정 잔, 청자의 작은 사발, 은 화로, 물 끓이는 솥은 모두 몰래 중국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무릇 잔치 때면 뜰에서는 뚜껑으로 덮고 느린 걸음으로 나아가다. 사회자는 차가 고루 돌려진 다음에 마시라지만 아직은 냉차를 마신 일이 없다. 집안에는 붉은 상으로 그 안에 다구를 출지어 놓고 붉은 김의 건으로 씌웠다. 하루에 차를 세 번 올리는 데 끓인 물로 잇는다. 고려 사람들은 탕(湯)을 약(藥)이라고 한다. 손님이 다 마시는 것을 볼 때마다 반드시 기뻐하고, 다 마시지 못하면 자기를 업신 여긴다면서 반드시 원망하고 사

라지므로 언제나 차 마시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點茶器具인 茶匙는 1925년 나카오(中尾萬三)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약간 손상된 채로 전해지고 있다.²⁹⁾ 나카오가 말하기를 “하나의 匙頭에는 開元通寶가 붙어 있고, 다섯 치 닷分寸량의 자루끝에 엽전의 지름보다 다소 넓은 구리 고리쇠에 열아문 개의 작은 고리쇠가 달려있다.

다른 하나는 스퀴프모양의 匙頭에 네 치 남짓의 자루가 있고, 그 끝에는 지름 두分寸의 다섯 꽃잎모양의 구리판이 있는 데 작은 고리쇠가 달려있다. 이 고리쇠는 찻솔(茶筴)로 차를 擊拂하듯이 차의 거품을 일으키려고 붙여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世宗 32年(1450年) 명나라의 使臣인 司馬恂에게 下賜된 茶匙도 고려시대의 형식이 계승된 것으로 推定된다

그리고 나카오(中尾萬三)는 仁和寺의 『御室御物實錄』에 보이는 茶散도 고려의 구리 茶匙와 같은 것으로 類推해석하였다.³⁰⁾

이러한 찻솔로 가루차를 달일 때 湯面에 뜨는 거품(乳花)에 대해서는 府院君인 李齊賢(1287-1367)이 읊은 茶詩에 보이며, 그 맛과 향기는 李奎報의 詰막이차(詰茶)詩에 보인다.

「松廣和尚이 햇차를 부친 은혜에 대하여 붓가는 대로 적어서 方丈 밑에 부쳐드리다」 李齊賢

숯술에 목메인 솔바람 소리 울리고

오지 사발에서는 어지러이 맹도는 짓빛 거품(乳花)을 토하네

「茶詩」(前掲古律詩) 李奎報

벽돌화로에 活火로 몸소 달이기를 시험하려고

손수 달인 花甌에 빛깔과 맛을 자랑하네

끈적끈적 입에 들어가니 연하고도 부드러워 어린 아이의 젖병새 같구나

朝鮮時代 葉茶에 대한 初見史料는 李齊賢(1287-1367)의 茶詩에 보이는 雀舌이 아니라, 韓脩(1333-84)가 읊은 茶詩에 보이는 芽茶이다.³¹⁾ 鮮初에도 麗末처럼 末茶와 葉茶가 併用되었다는 것은 河演(1376-1453)이 읊은 「智異山僧이 보낸 햇차」와 金時習(1435-93)이 읊은 「雀舌」³²⁾ 茶詩에 의하여 알

29) 拙著, 『韓國의 茶道文化』(東京: ぺりかん社, 1983), 180~185面.

30) 拙著 上掲書 184面.

31) 鮎貝房之進, 前掲書 376面, 『柳巷先生集』 26-27장.

32) 『教齋先生文集』 卷之二 11面

33) 『梅月堂集』 卷之一 “茶” 條

수가 있다.

「智異山の 스님이 보낸 햇차」 河濱

晉池의 風味는 臘前의 봄인데
智異山辺의 草樹는 새롭다.
금가루 옥사라기 달이니 또한 좋고
빛깔 맑은 향기 뛰어난 맛 더욱 진기하네

「雀舌」茶 金時習

남국의 봄바람은 연하게 일러는 데
차숲의 잎새밑에 보족한 부리 머금었네
가려낸 어린싹은 신령성과 매우 통하고
맛과 품격은 일찌기 육우의 「다경」(茶經)에 수록되었네
자주빛 순은 싹과 잎 사이에서 뿜혀 나왔고
봉병 용단차는 컷되이 모양만 본뵈네
푸른 옥사발에 活火로 달이니
계 눈이 비로소 생기고 술바람 울리네
산집의 밤은 고요하고 손님들 둘러앉아
운유를 한 모금 마시니 두 눈이 밝아지네
당씨 집에서 알게 잔질하는 저이는 어줍은 사람이니
어찌 눈으로 달인 차가 이같이 맑은 것을 알거나

그리고 麗鮮時代에 愛飲된 차에 龍團勝雪茶가 있다.

이 차의 品質에 대해서는 金正喜(1786-1856)가 權敦仁(1783-1859)에게 보낸 書札內容을 통하여 알 수 있다.³⁴ 곧 “차의 품격은 과연 勝雪의 향기가 그윽하더이다. 일찌기 雙碑館(북경-인용자 註)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보았소만, 동국(조선-인용자 주)에 돌아온 지가 40여년이거늘 아직도 다시금 이와 같은 것을 못 보았던 것이외다. 영남 사람이 지리산의 스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오만, 개미가 금탐을 모오는 듯하여 山僧 또한 참으로 얻기가 어렵다 하더이다. 또 내년 봄에 다시 빌어볼 필요가 있나이다. 스님은 모두 나라들을 두려워하여 깊이 감추고 내놓지를 않사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스님은 좋아 하므로 오히려 이를 도모할 수가 있나이다. 그

사람은 내 글씨를 매우 즐기는 지라 들고 돈다면 바꿀 길이 있나이다”라고 하였다.

무려 217종이나 되는 그의 雅號³⁵중에서 勝雪學人/道人이라는 號는 그가 1810년의 봄, 北京의 阮雲臺를 太僕寺街衍聖公邸의 泰峯雙碑之館을 방문하였을 때 대접받은 龍團勝雪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⁶

조선시대에 마신 차에는 이 밖에도 竹露茶·天地茶, 白雲玉版茶, 金陵月山茶, 雷莢茶, 雪乳茶, 寶林茶, 萬德茶가 있었다.

이 잎차들은 釜炒茶였다는 것을 艸衣禪師(1786-1866)의 「茶神傳」과 梵海禪師(1820-96)의 「草衣茶」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³⁷

그리고 煎茶法에는 茶罐(조선시대에도 急須라고 하였다)에 의한 淹茶法과 蓋盞에 의한 沖茶法도 있었다.³⁸

잎차와 융합할 물은 五沸純熟之湯을 썼으며, 茶罐에 湯水와 잎차를 投入하는 方法으로서 봄과 가을에는 中投法, 여름에는 上投法, 겨울에는 下投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艸衣禪師(1786-1866)의 「茶神傳」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茶罐에서 우려낸 차물의 빛깔은 연두빛갈이었기 때문에 色의 調和를 위해서 白磁의 茶鍾이 愛用되었다.³⁹

만약 이것이 色의 調和때문이 아니라 「宗教·생활 관습·경제사정·취향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종교별 차간의 빛깔이 무엇인지부터 차례로 밝혀야 할 것이다.⁴⁰

4. 獨創的인 茶文化

韓半島의 茶文化에는 독창적인 문화와 人·神·佛을 위한 茶禮와 같은 再構成된 문화, 水遞·岩戰과 같은 모방적인 문화가 있으나, 편의상 독창적인 문화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독창적인 차문화 중에서도 신라화랑의 茶具, 고려청자의 象嵌技法과 黃金比例, 茶軍士, 茶禪三昧의 先唱, 茶時, 茶童의 茶房奉職, 「茶信契節日」

34 「阮堂先生全集」與權彝齊書條

35 李家源, “阮堂 金正喜名號鈴印及教識攷”, 「圖書」第8號, (1965. 3), 37面以後.

36 藤塚 鄰, “槐園先生と私”, 「書物同好會報」第17號, (1942. 9) 12面.

37 「梵海遺集補遺」3面.

38 「進獻儀軌」所收의 玉茶鍾과 「故宮玉器選萃」續編(台北:國立故宮博物院, 1974)所收의 翠玉蓋盞은 沖茶法에 쓰이는茶具이다.

39 拙著, 「韓國의 茶書」(서울:探求堂, 1983), 146面以後.

40 全完吉, “茶具의 歷史의 考察과 보급방안에 대한 檢討”, 「茶文化세미나 發表要旨」(서울: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3), 40面.

全完吉, “茶具정립을 위한 사건”, 「전통문화」1985年 7月號, 55面.

등에 한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마스로우가 제창한 「食品의 消費形態」는 차문화의 변천과정과도 부합된다. 이를테면 蒙古나 티벳에서는 차를 生存飲料로 마셔왔고, 東洋三國에서는 차를 藝術인 茶道의 경지까지 昇華시켰다.

대만에서 茶道를 茶藝라고 하는 것은 「道」와 「藝」의 字義가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스로우의 學說과도 符合된다.

茶道의 成立背景 茶道의 成立背景을 살펴보면, 日本은 禪道와 歌道の 영향때문이었다고, 中國은 易理와 陰陽五行說때문이었다.

즉, 구와다(桑田忠親)博士는 그의 學位論文인 「日本茶道史」에서 「歌道가 禪道처럼 茶道成立上 커다란 役割을 한점을 力說」하였다.⁴¹⁾

그리고 중국의 茶道를 成立시킨 陸羽의 茶論에는 그의 이름짓기라든가 「茶經」의 風爐와 鑊에 담긴 그 思想性에도 나타나 있듯이 易理가 導入되었다.⁴²⁾

韓半島의 茶道에도 易理와 陰陽五行說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麗末의 鄭夢周와 鮮末의 丁若鏞(1762-1836)이 읊은 茶詩에는 「易經」의 八卦가 보인다.

「易經 읽기」 鄭夢周

돌출의 차는 비로소 끓고
 풍로불은 팔갈래 피었구나
 물불은 천지의 쓰임이니
 끝이 뜻은 무궁하도록

「茶盆詩帖」 丁若鏞

굽지 않은 벽들의 작은 차부두막은
 불계와 바람계의 형상일세
 차는 끓고 산동자는 조는 때
 간들거리는 연기는 오히려 절로 푸르고나

그리고 陰陽五行說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主人이 손님에게 차잔을 올리는 예법인 「左體右用」의 원리가 있다.⁴³⁾

본시 太一陰陽의 哲學的思想이 數學과 함께 展開된 것이 易學의 理論이며, 天文學의 方面과 발달된 것이 陰陽五行說인 것이다.⁴⁴⁾

그리고 歷代王朝의 興亡變遷은 新羅의 金行(聖數는 9), 高麗의 水行(聖數는 6), 朝鮮의 木行(聖數는 8)⁴⁵⁾에서 볼 수 있듯이 그 歷史觀은 天文五行思想으로 充滿하다.

그런데 韓半島에서 茶道가 成立된 背景은 天文五行思想이 아니라, 新羅에서는 樹木을 崇拜하던 民俗信仰과 아름다운 것을 崇尚하는 花郎의 마음이 融合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樹木을 崇拜하는 信仰이라면 日本에도 있었고 세계의 到處에 있었다.⁴⁶⁾

특히, 에이사이선사(榮西禪師, 1141-1215)가 宋나라에서 가져간 차씨를 심었다는 背振山의 「세후리」가 天孫降臨의 「소호리」나 新羅의 수풀(徐伐, 林)과 같은 말이라는 것은 가나자와(金澤庄三郎)의 所謂 「日鮮同祖論」에 詳述되어 있다.

그러나 韓半島의 樹木崇拜는 그 樣相을 달리하는 면이 많은 것 같다.

古代人에게 숲이나 나무가 神이 묵는 곳으로 神聖視된 것은 開國神話, 國號, 傳承되는 民間信仰 등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먼저 檀君神話에서는 天帝의 아들인 桓雄이 하늘에서 神檀樹 밑으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다.⁴⁷⁾

그리고 新羅의 始王인 朴赫居世는 楊山 밑의 樹林에, 四代王인 昔脫解는 海邊의 樹林에, 慶州金氏의 始祖인 金閼智는 月城西里의 始林에 降誕되었다고 한다.⁴⁸⁾ 그리고 國名인 沃沮(沃沮)는 滿洲語의 숲이며,⁴⁹⁾ 鷄林(始林)은 新羅의 國號이기도 하였다.

41) 桑田忠親, 「日本茶道史」(京都: 河原書店, 1958), 112面. 拙著, 「韓國의 茶書」(서울: 探究堂, 1984), 256-263, 267-270面.

42) 拙著, 「韓國의 茶書」, 256-263, 267-270, 402面.

43) 諸岡存外, 前掲書 173面.

44) 米田美代治, 「朝鮮上代建築の研究」(大阪: 秋田屋, 1944), 134面.

45) 崔柄憲, 「高麗時代의 五行的歷史觀」, 「韓國學報」第13輯, (1978, 秋), 17面.

46) 出口米吉, 「我國に於ける植物崇拜の痕跡」, 「東京人類學會雜誌」第282號. 三品彰英, 「建國神話의 諸問題」(東京: 平凡社, 1971), 231-254面. J. Frazer, The Golden Bough(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9), Chapter 9 "The Worship of Trees".

47) 一然禪師, 「三國遺事」一卷 古朝鮮錄.

48) 一然禪師 上掲書 赫居世王, 脫解王, 金閼智條.

49) 朴容淑, 「韓國의 始源思想」(서울: 文藝出版社, 1985), 114面.

또한 마을의 古木을 神木으로 삼아서 마을의 安寧과 祈子를 위한 民俗信仰이나 대나무(神將竿)에서 舉行되는 巫女の 降神儀도 傳承되어 왔다.⁵⁰⁾

그 뿐만이 아니라, 숲조각, 날솔가지, 붉은 고추를 꽂은 금줄을 출입문의 위에 치는 産俗도 樹木崇拜思想의 한 形相인 것이다.⁵¹⁾

무엇보다도 茶道에서 茶樹를 媒介體로 하는 것은 生物界중에서도 가장 基本的인 存在는 植物⁵²⁾이며, 더우기 茶樹가 養性에 걸맞는 要件을 갖추고 있는 바, 宋나라의 鮮徹(1029-1112)은 그것을 茶詩로써 읊기도 하였다.

「李公拱의 韻을 이어 攄(山)泉으로 章子厚의 韻 두 首에 答하다」

性은 好茶와 같아서 늘 스스로를 기른다.

그리고 茶樹의 德性에 대해서는 艸衣禪師의 茶偈에 잘 表現되어 있다.⁵³⁾

ଏ부터 聖賢은 모두 차를 즐기나니
차는 君子처럼 性品에 邪惡함이 없네

결국, 차의 天性을 따라서 德을 쌓는 修練行爲가 茶道인 것이다.

한편 新羅茶道の 主役인 花郎은 官吏로 拔擢하려고 修練시킨 靑少年의 集團인데 그들을 花郎이라고 呼稱한 것은 人間의 植物化요 植物의 擬人化이기도 하였던 것이다.⁵⁴⁾

더우기 新羅人들은 『三國遺事』의 「水路夫人」·「處容郎과 望海寺」 등의 說話에서도 알 수 있듯이 身體美를 崇尚하는 氣風이 있었고, 花郎을 彌勒의 化身으로 보았다.⁵⁵⁾

이처럼 花心과 茶心이 融合된 花郎徒의 茶道精神은 美德이었다고 할 것이다.

花郎의 野外用茶具 花郎들이 사용한茶具는 同時代에 唐나라에서 사용된茶具와는 전혀 달라서, 花郎의 修練要目인 山川遊戯에 알맞도록 野外用으로 考案된 것이었다.⁵⁶⁾

高麗靑磁의 象嵌技法 東洋의 陶磁器에는 中國의 色, 日本의 形, 韓國의 線이라는 特色도 있으나, 茶人들이 寸침을 흘리는 高麗靑磁의 象嵌技法은 獨創의인 것이다.⁵⁷⁾

일찍이 宋나라의 太平老人은 高麗靑磁를 天下第一의 品類로 列擧하였다.⁵⁸⁾ 곧 “...端溪의 硯, 徽州의 硯, 洛陽의 硯, 建州의 茶, 高麗의 秘色(靑磁)은 모두 天下에서 第一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찌야마(内山省三)도 中國陶器의 強點은 눈에 호소하는 데 있고, 高麗陶器의 強點은 마음에 호소하는 데 있다면서 그 특징⁵⁹⁾에 대하여 “高麗朝의 陶器는 내게 있어서 하나의 宗教이다. 만약 「神에게 도달하는 길」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의 나는 한 마디로 「高麗陶器를 통하여」라고 대답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東洋精神의 極致가 「靜寂」이요, 「靜寂」의 極致가 「無」라고 한다면 「無」의 世界의 所産인 高麗陶器야 말로 東洋精神의 極致라고 하여도 감히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다.

茶陶의 黃金比 審美性을 科學的으로 究明할 때 適用되는 黃金比란 形態調和의 基本原理로서의 比例法則인데, 가장 理想的인 調和律은 5 : 8로 되어 있다.

이러하면, 陶磁器의 造形美를 分析할 때 1辺이 1일 때 다른 1辺이 1.618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다.⁶⁰⁾ 그래서 麗鮮時代의 陶磁器를 黃金比로써 類型別로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黃金比와 一致하는 것이 大部分이고, 나머지도 黃金比와 近似值

50) 村山智順, “朝鮮の子祈り習俗,” 『朝鮮』(1932. 2), 53面 以後. 慈谷·治, “洞祭,” 『朝鮮學報』第74輯, (1975. 1), 97面 以後. 河鐘甲, 『南海岸의 民俗信仰』(서울: 宇石出版社, 1984), 10~280面. 崔德源, 『多島海의 堂祭』(서울: 學文社, 1984) 11-198面.

51) 今村 綱, 『扇·左繩·打毬·籠』(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37), 173~186面.

52) 山下正男, 『植物と哲學』(東京: 中央公論社, 1977), 5~6面.

53) 『草衣集』 下 21面.

54) 拙著, 『茶道學』, 210~211面.

55) 金惠婉, “新羅의 花郎과 彌勒信仰의 關係에 대한 研究”(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78), 46面.

56) 拙著, 『茶道學』, 190~195面.

57) 内山省三, 『朝鮮陶磁鑑賞』(東京: 學藝書院, 1936), 92面.

58) 韓致濬, 『海東輿史』 卷29 袖中錦.

59) 内山省三, 前掲書 3~7面.

60) 柳亮, 『黃金分割』(東京: 美術出版社, 1965), 26-30面.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⁶¹⁾

특히 井戶茶碗에는 黄金比와 一致하는 것과 近似 值한 것이 많다는 것도 밝혀졌다.⁶²⁾

茶軍士 茶房이라는 官衙는 中國과 日本에도 있었지만, 茶軍士라고 하면 아마도 高麗의 固有한 軍制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中國에도 宋代에 茶商軍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그것은 茶의 商人들이 金나라 軍士의 南下를 막기 위해서 入隊한 義勇軍이지 茶를 다루는 軍士가 아니었기 때문이다.⁶³⁾

高麗의 茶軍士에는 임금님이 行幸할 때 거행되는 茶禮를 위한 茶担軍士와 行爐軍士가 있었다.

茶禪同一味の 先唱 李奎報는 「壯元·房衍寶의 和答詩를 보고 韻을 이어서 이에 答하다」라는 茶詩에서 茶禪一味의 境地를 先唱하였다

草庵의 다른 날 禪房을 두드려
몇 권의 오묘한 책 깊은 뜻을 토론하리
듣기는 했어도 오히려 손수 샘물 뜰 수 있으니
한 사발은 곧 이것이 參禪의 始라네

이에 대하여 미시나(三品彰英, 1902-71) 박사가 말하기를 “(前掲의 漢詩)는 모두가 茶와 禪의 同一味를 노래한 것(中略) 「一隨即參禪始」라는 詩句를 宗旦⁶⁴⁾의 (中略) [茶禪一味]라는 禪茶論과 함께 읽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마꾸라(熊倉功夫) 박사는 茶禪一味에 대한 兩國의 提唱時期를 比較하고 다음과 같이 “茶禪一味의 主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大休宗休의 語錄인 「見桃錄」에 「茶兼禪味可能避俗塵來」의 一句에 보이는 것이 가장 빠르다. 15·6世紀의 무렵에 해당된다. 그러나 조선의 차에서 茶禪一味의 主張은 보다 오래되어 前掲의 李相國詩에(中略) 一隨即參禪始라고 하였다. (中略) 대략 12·3世紀의 무렵에는 日本에 앞서서 茶禪一味의 主張은 朝鮮의 茶에 나타나는 것이다”는 結論을 내렸다.⁶⁵⁾

茶時와 清白吏精神 麗鮮時代に 流行된 奇俗으로서의 茶時는 清白吏精神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⁶⁶⁾

즉, 官吏의 非行을 監察하던 司憲府의 監察官들은 낮의 茶時가 되면 司憲府의 茶時廳에 모여 차를 마시면서 非違를 저지른 官吏에 대한 情報를 交換하였다. 그리고 밤의 茶時에는 監察官들이 貪官汚吏의 집에 뭉어서 當事者의 罪狀을 적은 白板을 大門위에 걸고 荆棘으로 封한 다음 解散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出入도 制限되고 社會적으로 埋葬되는 것이었다.

茶童과 茶房勤務 茶童의 茶房奉職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래 新羅의 花郎으로부터 비롯된 茶童教育의 傳統은 朝鮮時代에도 傳承되었다는 것이 李德懋(1741-93)가 지은 『士小節』의 「童規」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곧 “어버이를 섬기는 사람은 약과 차를 달이며 물과 불의 살피기를 몰라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茶童이 官吏가 되면 義務인 茶房勤務를 마친 뒤에 다른 部署로 轉補되도록 制度化되어 있었다.⁶⁶⁾

水·火·風의 살피기를 修練의 근본으로 하는 茶道の 原理는 政治의 근본으로 하는 治山治水에도 貢獻되었을 것이다.

茶信契節目 茶信契節目은 茶山·丁若鏞(1762-1836)이 全羅南道 康津의 流配生活에서 풀려나던 1818년에 弟子들과 함께 信義를 잊지 말자는 念願을 담아서 成立된 것이었다.⁶⁷⁾

全文 13條로 構成된 『茶信契節目』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다.

穀雨날에 어린 차를 따서 덥혀 한 근을 만들고, 立夏 전에 늦차를 따서 떡차 두 근을 만든다. 이 앞차 한 근과 떡차 두 근을 詩札과 함께 부친다.

61) 李一聲, “韓國傳統陶磁器形態의 黄金比에 依한 分析”(碩士學位論文, 弘益大學校 產業美術大學院, 1979), 35面.

62) 浜口良光 外, 「李朝의 美」(東京: 毎日新聞社, 1973), 202面.

63) 佐伯 富, “宋代의 茶商軍에 就いて,” 『東洋史研究』 第2號, (1938, 11~12), 51面.

64) 三品彰英, 「朝鮮의 茶」(茶道全集, 卷의一, 大阪: 創元社, 1935), 287-288面.

65) 千宗旦(1578-1658)은 日本茶道の 完成祖인 千利休(1520-91)의 孫子로서 「茶禪同一味」라는 말을 남겼다.

66) 熊倉功夫, “煎茶史序考,” 『風俗』 第14卷 3號, (1976. 3), 14面.

67) 拙稿, “麗鮮時代の 茶의 奇俗攷一茶時と茗戰,” 『茶湯』 第18, (1982. 11), 1面 以後.

68) 『太宗大王實錄』 卷 第二十二 35面.

69) 拙著, 「韓國의 茶書」, 11~20面.

이 節目은 1940年代까지도 履行되었다는 것이 確認되기도 하였다.⁷⁰⁾

勝雪의 辨水論 일찌기 淸나라의 乾隆帝는 北京 玉泉山의 天下第一泉을 비롯하여 寒山伊遜의 물, 濟南의 珍珠泉, 揚子의 金山泉, 惠山 虎跑의 물 무게를 銀斗로써 견주어 品等を 決定한 글을 쓴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글을 읽은 金正喜가 다음과 같은 辨水論을 적어 남겼는데,⁷¹⁾

그 내용은 “勝雪學人은 적노라. 근래 사람들은 모두 무거운 물을 좋다고 하지만 이것은 無智한 妄說이다. 물이 무거운 것은 물의 앙금때문이며 미처 알아지지 않을 뿐이다”와 같다.

이것은 傳統的인 重水說을 輕水說로 바꿈으로써 東洋茶道の 價値體系를 根本的으로 改革하는 茶論이었던 것이다.

이 밖에 최근 발견된 李穆(1471-98)의 「茶賦」도 稀願書이지만 이의 紹介는 다른 機會로 미룬다.

5. 日本에 끼친 影響

일찌기 史家인 崔南善(1890-1957)은 「高麗의 茶와 茶道는 北으로는 契丹과 南으로는 日本에 影響을 준 것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었다.⁷²⁾

그런데, 日本의 佗茶道와 그 精神은 宋나라 魏慶之의 「詩人玉屑」로부터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⁷³⁾

그리고 그 佗精神에 符合되는 茶室과 茶具는 韓半島로부터 影響을 받았다.

茶室의 源流 茶室에 대해서 日本의 茶道界에서는 草庵茶室의 源流가 韓半島라는 說과 町衆階層의 庵室이라는 說로 갈라져 있다.⁷⁴⁾

이 중에서 茶室의 韓半島源流說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은 日本人들의 見解가 있다.

즉, 아사카와(淺川伯教, 1884~1964)는 日本茶室의 源流는 韓國의 民家와 僧庵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⁷⁵⁾ 곧 “만약, 日本茶室의 構造가 어디에서 暗示를 얻었는가 하면 朝鮮의 남쪽 특히 全라남도변의 民家나 僧庵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나.

또한 가네코(金子量重)는 韓國의 亭子가 日本茶室의 源流라 보고,⁷⁶⁾

“亭子가 草庵茶道の 源流가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數奇屋」라는 表現이다. 韓國의 건물은 기둥이나 床板도 가지런한 것을 쓰지 않고 있다. 나는 이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였지요”라고 하였다.

이러한 方丈茶室의 典據에는 「維摩經」·「碧巖錄」以外에 「禮記」도 있다. 그리고 李奎報가 「晉康侯茅亭記」에서 말한 “城市山林”이라는 말은 로드리게스의 「日本教會史」에 “市中の 山居”라는 말로 나타난다.

또 茶室로 기어 들어가는 문(躡り口)은 센노·리큐(千利休, 1522-91)가 요도친(淀川)을 내려가는 船窓에서 힌트를 받았지만, 다케우찌(竹内尉)는 「茶道の 精神」에서 「그 양식은 朝鮮 민가의 출입구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茶庭의 高麗寶塔, 高麗芝, 茶室內의 高麗台子, 高麗茶碗, 高麗綠의 疊⁷⁷⁾을 비롯하여 日本의 茶典인 「南方錄」이나 「御飾書」 등에 보이는 香爐·花瓶·燭臺의 三具足(長崎·万松院 所藏)도 한반도의 傳來品인 것이다.⁷⁸⁾

陶工의 拉致와 倭館窯 후지하라(藤原銀次郎, 1869-1960)는 茶陶의 影響에 대하여 「日本의 國粹인 茶道에서 옛부터 가장 尊重하여온 名物茶碗의 8割까지가 朝鮮陶器이다」라고 하였다.⁷⁹⁾

이것은 陶工의 拉致와 陶器의 注文에 起因되는 것이었다.

70) 鮎貝房之進 前掲書 389面.

71) 藤塚 辨 前掲書 13面.

72) 崔南善, 「故事通」(京城: 三中堂, 1943), 30面.

73) 芳賢幸四郎, “わびの美とその系譜”, 「一九八二年 茶の湯學術會議 論文集」(호노루루: 하와이大學校, 1982), 23面.

74) 伊藤鄭爾, “草庵風茶室의 源流”, 「日本歷史」第101號, 21-26面. 第102號, 39-43面.

75) 淺川伯教, “朝鮮のお茶”, 「ねび」8-1, (1944. 1), 20面.

76) 林屋辰三郎 外, 「歷史の中の日本と朝鮮」(東京: 講談社, 1981), 165-166面.

77) 中樞院(編), 「朝鮮の國名に因める名詞考」(京城: 朝鮮總督府, 1940), 138-216面.

78) 久松眞一, 「南方錄」(京都: 淡交社, 1981), 89面. 千宗室, 「茶道古典全集」第二卷(京都: 淡交社, 1956), 415面. 東京國立博物館(編), 「朝鮮通信使」(東京: 東京國立博物館運營協力會, 1985), 51, 73面.

79) 諸岡 存 外, 前掲書 2-3面.

사실, 陶磁器戰爭이라는 壬辰·丁西倭亂에 出戰한 日本의 城主나 將軍은 朝鮮의 陶工을 拉致하여 上野·高取·有田·唐津·三河内·小代·薩摩·萩의 陶窯를 開設하였다.⁸⁰⁾

그 결과 日本의 陶磁器 生産量도 증가되고, 德川 時代에 자득(佗)에 符合되는 陶器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자득의 點茶가 가능케 된 것이다.⁸¹⁾

그리고 將軍이나 茶道를 수련하던 諸侯(大名)의 需要를 充當키 위해서 1644년부터 1717년까지의 70여년간, 對馬島主는 釜山の 倭館内에 마련된 陶窯에 陶工을 보내어 見本注文에 의한 「御本燒物」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⁸²⁾

Ⅲ. 結 論

한국 다도의 구조적인 특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국에서는 茶·茶禮·茶道가 계승되고 있다.

중국 차문화의 영향으로 일본과 함께 삼국시대의 餅茶, 고려시대의 研膏茶, 조선시대 이후의 葉茶의 3 단계로 변천되었다.

한국의 차문화에는 독창적·모방적·再構成的인 문화가 있다. 그리고 다도는 樹木崇拜信仰과 관련지어 成立된 것 같다.

일본에 끼친 차문화에는 茶室과 附屬物, 그리고 佗茶道에 맞는 茶陶의 傳授등이 있다.

80) 松田 甲, 「續日鮮史話」 第三編(京城:朝鮮總督府, 1931), 34-53面.

81) 磯野風船子, “千利休の茶の湯の置合と点前,” 「石泉」 62輯, (1973. 10), 24面 以後.

82) 泉 澄一, “釜山窯の陶工とその作品をめぐって,” 「大和文章」 第66號, (1980. 3), 13面.